

# ‘쇠파라치’ 벌써부터 극성

지난 8일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모든 음식점 등으로 확대·시행된 가운데 광주지역 일선 지자체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기관 등을 묻는 문의전화의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 ‘쇠파라치’의 등장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꾼 ‘포상금 얼마나?’ 문의 전화 쇄도 ‘돈벌이용 전략’ 부작용도 클 듯

20일 광주시 일선 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각 구청 위생과와 경제과에는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신고 포상금 지급기관 등을 묻는 문의전화의 하루 평균 십여 통씩 걸려오고 있다. 이들은 ‘신고 포상금 지급기관이 어디냐’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되느냐’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냐’ ‘포상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느냐’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노린 ‘쇠파라치’의 신고도 있었다. 지난 14일 담양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남성이

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100㎡ 미만)을 신고하려는데, 포상금이 얼마나?”라고 묻는 신고 전화를 복구청에 걸어들었다. 복구청 관계자가 “아직은 단속 대상 음식점이 아니다”고 답변하자 이 남성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이 같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신고 포상금을 노린 일명 ‘쇠파라치’들이 곳곳에서 행위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당한 후유증도 예고된다. ‘신고보상금제’가 효과보다는 전문신고꾼을 양산하고 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신고 포상금 부업 사이트가 유료회원제로 운영되고, 쇠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까지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내 식당 주인 임모(33·동구 계림동)씨는 “신고자들은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불법행위를 포착해 돈벌이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먹을거리 불신감을 없앤다’는 명분에도 맞지 않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현재 원산지표시와 관련, 제도단속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오는 10월 1일 이후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지만 신고 포상금제가 전문 신고꾼들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원산지 허위 표시 음식점 신고 시 면적에 상관없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미표시의 경우 100㎡ 이상 음식점에서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이 나올 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반대 집회 모습. 앞줄에서 열린 ‘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5월단체인 기동타격대 동지회원 5명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입곡초 ‘교장 공모’ 무산

## ‘대리심사 있었다’ 확인 운영위 의결 무효 조치

교장공모제를 진행 중이던 광주시에 한 초등학교에서 심사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공모제가 무산됐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제3차 교장공모제 시범학교에 선정된 입곡초는 최근 4명의 신청자 중 3명의 심사를 통과한 한 명을 낙점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 실시를 결정하고, 공모제 심사에도 나선 학교운영위원회 중 무자격자가 있었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무효가 됐다. 문제는 입곡초 학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근 Y육아원 원장이 학생의 보호자 자격으로 학부모위원에 이름을 올렸지만, 학교운영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직원을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이

**태풍 뒤 무더위 7월 21일** (음 6월 19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비가 온 후 점차 개겠다.

◇전국날씨

광주	비후	25~32
포항	비후	24~29
수원	비후	25~29
안동	비후	25~30
대구	비후	25~32
부산	비후	25~30
인천	비후	25~30
대전	비후	24~31
전주	비후	25~30
울릉도	비후	24~31
독도	비후	25~32
제주	비후	24~31
충청	비후	22~28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3.0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3.0m  
만바다=남서~서풍 파고 1.5~4.0m  
목포 밀물 < 04:09 썰물 < 09:22  
16:12 21:22  
여수 밀물 < 10:47 썰물 < 04:48  
23:14 16:41

▲해돋이 05:33 ▲해질 19:44 ▲달돋이 21:26 ▲달질 08:07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날씨						
최저/최고	25/32	24/31	25/32	25/31	26/31	26/31

# 10대 사망 원인 ‘자살’ 2위

교통사고 1위, 암 3위 보건복지부 분석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두번째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6년 사망한 10~19세 청소년 937명 중 자살한 청소년은 233명으로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했다. 교통사고가 357명으로

# 이행기 학장 횡령 혐의 검찰 공정 수사 촉구

성화대학 교수 노조

전남지역 사립 전문대 교수들이 횡령 등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학장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조 성화대학지회(지회장 류부길)는 오는 22일 오전 강진군 성전면 성화대학 체육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같은 날 오후 광주지법 장흥지원 앞에서 ‘이행기 학장 공정 검찰

# 카파라치 폐지 후 교통사고 되레 감소

輪禍 건수 6.2% ‘뚝’...한나라 박종희 의원 “제도 부활 철회”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카파라치’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한 가운데 “4년 전 제도 폐지 이후 교통사고가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는 카파라치가 사고 억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반증”이라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카파라치 폐지가 없어진 2003년 1~3월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만548건으로 제도 시행기인 2002년 같은 기간 5만3천891건에 비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

# 법원 “골프장 주말 예약권 빼돌려 팔면 불법”

골프장이 비회원들에게 주말 예약권을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운 부장판사)는 골프장 주말 예약권을 빼돌려 비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회사 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재혼만 10년!**

남자: 30대 초반, 170cm, 75kg, 서울대 경영학 석사, 대기업 과장, 연봉 1억 2천만 원, 자동차 2대, 부동산 2채, 여동생 1명, 10년째 재혼 생활 중.

여자: 30대 초반, 160cm, 55kg, 서울대 경영학 석사, 대기업 과장, 연봉 1억 2천만 원, 자동차 2대, 부동산 2채, 여동생 1명, 10년째 재혼 생활 중.

이혼 사유: 성격 차이, 생활 습관 차이, 재산 분할 불협화음.

이혼 절차: 합의 이혼, 재산 분할 완료, 자녀 양육권 협의.

문의: 527-3388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소

**ANYCHE CHAIR**

Anyche

가볍고 편안한 바디에 최고의 편안함을 선사하는 - 유선형 의자

www.anyche.com